

# 釜山中小製造業의 經營實態分析과 活性化方案에 관한 研究

안 기 명<sup>1)</sup>

## A Study on Managerial Analysis and Developing Alternative of Pusan Small - Firm

*Ki - Myung An*

### I. 문제의 제기와 연구목적

중소제조기업은 소비수요패턴의 다양화, 고품질, 다품종소량제품에 대한 납기준수, ZERO 재고유지 등의 대외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이 대기업에 비해 탁월하여 우리경제에서 부가가치나 고용창출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면서, 전체 제조업중 그 비중이 점차 증대되어 왔다.<sup>2)</sup>

그러나, 우리중소기업의 현실은 기술개발자금의 부족, 판매능력의 미비,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침해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생산시설의 낙후성과 영세성으로 중소기업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환경변화에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부산지역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어, 부산지역 중소기업은 부산경제의 위축과 더불어 80년대이후 계속 큰 폭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산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산업구조상의 취약점 및 생산설비의 노후화와 정책미비로 들 수가 있다. 부산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제조업문제가 밀리고 있어 중소기업육성대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둘째로, 경기침체, 담보부족, 기업저평가, 어음결제문제, 자본시장접근의 어려움, 마케팅전략미비로 판매선의 확일성(창원 울산 등의 대기업에 대한 고정적인 부품납품) 등으로 시설투자와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부족과 기술개발의 미흡을 들 수가 있다.

셋째로, 부산지역 중소기업은 영세한 소기업이 특히 많아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영능력이 미흡하며, 또한 협력기업 및 동종, 유사업종간의 유기적인 경영전반적인 협력관계의 미흡하여 공동기술개발, 공동정보교환, 공동판매선 구축 등의 환경변화를 타개하는 능력이 전반적으로 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부산지역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할 중소기업의 이러한 문제

1) 한국해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해운경영학과

2) 80년도와 90년도를 비교해 볼 경우, 생산액은 31.9%에서 42.7%로, 부가가치는 35.2%에서 44.2%로, 종업원 수는 49.6%에서 61.7%로 각각 증가되고 있으며, 경공업위주에서 점차 중화학공업으로 구조조정됨으로서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서 공헌도가 증대되어 왔다.

점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중소제조기업의 현좌표와 경영실태를 분석하고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II. 부산중소제조업의 현황분석

### 1) 고용측면

제조업은 단순근로직, 기술직, 사무 및 관리직 등의 여러 직종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직접적인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분야로서 고용창출효과가 그 어느 산업보다도 커서 인구유입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을 촉진하게 하여 거점산업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다.

일본이나 대만에 비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조한데<sup>3)</sup>, 그 이유로는 아직도 우리 중소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덜 진전되어 있어,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생산시설(규모)면에서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산지역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실상은 우리나라 타 지역에 비하여 더욱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이나 부가가치가 전국평균이 비하여 저조하여 현 부산지역 제조업은 국내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열위에 있어 고용창출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전체로 볼 경우, 전국평균은 종업원 1인당 생산액과 부가가치가 각각 약 5천 8백원과 2천 3백만원인데, 부산지역은 각각 3천 6백만원과 1천 4백만원에 불과하다.

한편, 부산중소제조기업이 전국평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지만 보다 심각한 것은 부산지역 대기업이다. 즉,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산지역 대기업은 종업원 1인당 생산액과 부가가치가 전국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어 부산지역 경영환경의 악재요인(물류비용의 증대, 높은 공장용지가, 산업구조의 비고도화, 정책부재 등)이 대기업의 경쟁력상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실제로 부산지역에서 대기업형태의 제조업이 존속하지 못하고 양산, 창원, 울산 등의 근린 경남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

<표-1> 전국대비 종업원 1인당 생산액과 부가가치(90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업원 1인당 생산액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전 국 평 균	58.731	23.493
대 기 업	87.962	34.193
중 소 기 업	40.619	16.863
부 산 평 균	36.892	14.775
대 기 업	39.595	14.571
중 소 기 업	34.913	14.924

자료원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역 제조업체현황, 1993년.

3) 총사업체 중 중소기업의 사업체수는 한국, 일본, 대만 모두 98 % 이상으로 3 국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고용측면에서 보면 일본과 대만은 70 % 이상인데 비하여 한국은 90년대에 들어서서 겨우 60 %에 달하고 있어 두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을 입증하는 셈이다<sup>4)</sup>.

이러한 양상은 타 지역에 비해 시장판매보다는 대기업에 고정거래선에 의한 납품을 하는 업체가 많은 부산중소제조기업에게는 이중적인 경영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협업화단지 조성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

둘째로, 부산지역 제조업의 임금수준은 전국 최하위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종업원 1인당 생산액이나 부가가치가 낮은 면도 있지만, 부산지역에서 고용창출력이 가장 큰 신발산업과 섬유산업의 쇠퇴와 서비스산업의 상대적인 성장을 들 수가 있다.

화학, 고무업과 섬유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기계 및 금속산업에 비하여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인데, 부산지역의 중소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0년도이후에는 경쟁력이 급속하게 약화되어 도산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산지역이 전국 최하위의 임금수준이 되는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실상과 더불어 서비스산업의 상대적인 성장은 중소제조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확보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부산지역 중소제조기업의 절반이상이 기능직과 기술전문직의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 2) 생산측면

전통적인 개념의 생산형태는 규모경제에 입각하여 주문생산일 경우에는 다품종소량생산형태가 유리하고, 시장생산일 경우에는 소품종대량생산형태가 유리하다고 간주하여, 주로 주문과 하청에 의한 부품, 소재, 중간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중소제조기업의 생산형태는 시장수요에 따라 생산방식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대기업과는 달리 다품종소량생산형태를 많이 띠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과 같이 국내외적으로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하고 소비패턴이 다양하고 제품 및 기술수명 주기가 단축되는 급속한 환경변화속에서는 모기업에서도 고품질과 철저한 납기준수 그리고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납품되는 부품과 중간제품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시장수요를 개척할 필요가 생긴다. 따라서 전통적인 개념의 생산형태는 오늘날과 같은 환경변화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신생산전략 (가령, 다양한 소비수요패턴에 대응하는 Batch 생산시스템의 설계, 혼류생산시스템 등)과 생산운영의사결정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 중소제조기업 특히 부산지역 중소제조기업은 이에 대한 인식과 대처능력이 미비한 것이 다음과 같이 저조한 한 것이 현실이다.

첫째로, 생산형태면에서 보면, 시장생산이 80% 이상인 중소제조기업은 전체의 18.7%에 불과하고 주문생산에 80% 이상 의존하고 있는 업체는 56.9%로 나타나고 있어 부산지역 중소제조업은 납품에 의한 주문

〈표-2〉 시장생산과 주문생산에 관한 자료

(단위: %)

구 분	0-19 %	20-39 %	40-59 %	60-79 %	80-100 %	합 계
시장생산	64.2	7.3	4.9	4.9	18.7	100
주문생산	24.4	6.5	6.5	5.7	56.9	100

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자료(1992년 12월)임.

4) 77년부터 91년까지 양산, 김해 등 경남지역으로 이전한 업체수를 보면, 대기업이 27개, 중소기업이 399개이며, 이전한 기업의 종업원수의 54%가 대기업이다.

자료원: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지표, 1992년.

생산형태를 많이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둘째로, 부산지역 중소기업은 부품외주비율이 저조하여 지역 중소기업간의 분업화가 미비하여 협업화가 안되고 있음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대상업체의 71.4%가 외주비율이 30% 미만이거나 없다고 응답함)

오늘날과 환경변화에는 제품의 다양화와 고품질이 요구되므로 과거에 비해 생산공정의 전문화와 다양화가 요구되므로 이를 위한 제조기업간 협업화가 필요하다.

대기업에 비해 생산정보수집, 기술개발능력, 판매능력이 미비한 중소기업이 살길은 협업화에 의하여 공동으로 기술개발하고 생산공정을 전문화하고 공동판매망을 조직하는 것이 대기업의 횡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가 있으며, 급변하는 환경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셋째로, 생산설비투자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제조기업에서의 생산활동은 조직활동중에서 중심적인 활동으로 부가가치생산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특히, 오늘날은 대내외적인 치열한 기업간의 경쟁과 다양한 소비수요패턴의 변화 등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하여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술 및 제조공정상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범세계적으로 제조기업에서는 첨단생산기술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y : AMT, 이는 MRP, JIT(적시생산방식), Robotics, FMS, CIM, CAD/CAM 등의 신생산기법을 통칭함)을 도입하여 생산우위를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전사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생산기술을 도입하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조직변화, 새로운 경영관리를 가능케 하는 원가관리시스템, 성과평가시스템 및 생산전략변화에 따른 공장자동화 (FA) 등을 위한 생산설비의 개선과 확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산설비투자정도는 제조기업의 성장과 발전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소이다.

84년이후부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증가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92년에 들어와서는 경기침체와 경쟁력약화에 따른 수익성저조로 투자여력이 감소하여 시설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93년도에는 오히려 생산설비의 감축이 예상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중화학공업부문인 1차금속, 조립금속, 기계, 장비업종은 91년도에 비해 92년도에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여 10.9%가 증대되었지만 경공업부문인 신발, 섬유, 완구 등의 노동집약적산업의 국제경쟁력의 약화와 건설경기 진정에 따른 비금속광물업종의 설비투자감소로 전년대비 1.0%가 감소하였다. 93년도의 전망에 의하면 모든 업종에 걸쳐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신발, 섬유 등의 경공업분야는 대폭적인 감소세가 예상되고 있다.

〈표-3〉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액 추이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금 액	20,231	23,411	26,752	34,001	42,190	44,457	38,913
증 감 율	24.8	15.7	14.3	27.1	24.1	5.4	△ 12.5

\* 1993년도는 추정치임

\* 자료원 : 중소기업은행, 기은조사월보, 1993년 3월호.

### 3) 판매, 수출, 재고측면

제조기업에 있어서 판매활동과 생산활동은 핵심적인 조직활동이며 여타 활동(재무, 인사, 회계 등)은 이를 지원하는 조직활동이다. 이 두가지 활동이 지속적으로 균형을 이루며 커져야만 기업도 성장, 발전될 수가 있는 것이다.

만일 이 두 활동에 불균형이 생기면 이로 말미암아 기업은 어떤 형태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게 되며 균형을 이룰 때까지 조직규모는 축소되고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된다.

재고 (Inventory)는 생산활동에 비하여 판매활동이 부진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기업은 재고축적으로 재고유지비 등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생산활동은 그만큼 위축되게 된다. 또한 성과평가측면에서 판매활동은 기업의 책임중심점중 이익중심점으로 기업의 수익성규모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전국적인 제조업의 매출동향(92년도)을 보면, 민간소비의 진정과 수출부진 등으로 매출신장세의 둔화로 매출액증가율이 과거(20-22%)에 비하여 감소(12.5%)하고 있으며, 건설업(34.3%)이나 도 소매업(23.9%)보다도 훨씬 밀돌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들어 가격경쟁력의 상실, 후발국의 추격가속화 등의 대외수출환경 악화와 국내경기의 위축 등에 기인하여 부산지역 중소기업체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부진을 겪고 있는 부산 중소기업체는 자본축적과 재무구조의 영세성(타 지역에 비해 소기업이 많음)과 자금조달능력의 전무로 수출부진은 기업도산을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자금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부산지역 중소기업체의 수출유형을 보면 직접수출이 약간 증가되고(90년도의 42.7%에서 92년의 51.3%로), 간접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90년도 50%에서 92년도 39.6%로)하여 수출능력, 해외시장개척능력 등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가격경쟁력 약화, 현지수요 감퇴, 수출지원대책 미흡, 해외시장정보 부족 등으로 수출상의 애로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전국 제조업의 수출규모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내외이지만 부산지역의 경우는 60% 수준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공헌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대책이 시급하다.

### 4) 중소기업의 성장추이

우리나라는 60년대이후 지난 30여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는데, 이러한 경제성장의 배경은 60년대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정책과 70년대의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의 지원아래 제조업부문의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정책적 지원아래 이루어진 급속한 성장은 주로 외형적인 양적성장으로서 성장과정에서 높은 물가상승,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잉시설투자,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 등의 부작용이 수반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측면과 질적성장측면에서 적지않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그 휴유증여파가 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대기업위주의 수출드라이브정책과 중화학공업육성정책은 중소기업을 상대적으로 납품 하청기업으로 전락시켜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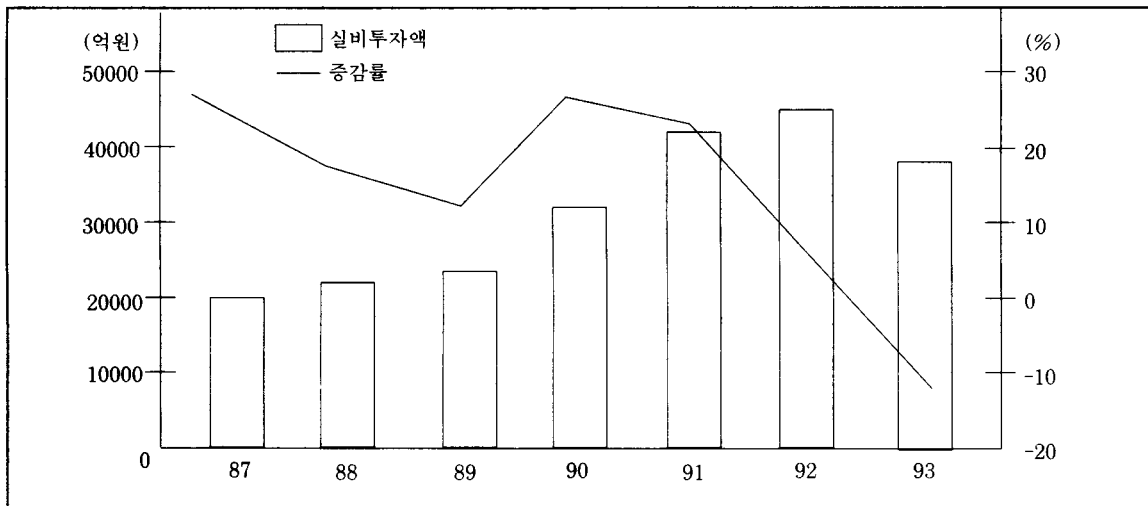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대기업이 주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대기업이 제품을 수출하기까지는 소재, 부품, 중간제품을 납품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의 노력과 희생에 의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공헌도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금융 세제상의 지원과 정책은 직접 완제품을 수출하는 대기업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노후화된 생산시설의 개선, 기술개발하는데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납품대금의 지연 및 어음결제상의 문제점 등의 대기업의 횡포와 대기업의 노사분규 영향이 그대로 중소기업에 파급되어 연쇄도산을 하는 등의 경제성장의 공헌도만큼 혜택을 받기 커녕 오히려 무시되어 왔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중소기업은 첨단생산시설 및 기술도입과 같은 체질개선을 하지 못한 채, 오늘날과 같은 급격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를 맞게 되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설비투자 추이로 살펴보면 <표-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4>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추이



자료원 : 중소기업은행, 기은조사월보, 1993년 3월.

상기 표에서 보면, 90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물론, 경기불투명에 따른 내수부진과 수출부진이 주요인이지만, 기업인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부족, 일관성있는 정책미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상이다.

특히, 부산지역의 제조업은 거의 대부분이 울산, 창원, 양산 등의 주변 영남지역에 소재해 있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산지역 경제의 위기상황은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부산 경제의 현좌표이기도 하다.

### Ⅲ. 부산중소제조기업의 경영실태진단

#### 가. 성장성분석

##### (1) 개요

- 중소기업업체의 경영규모는 80년대말의 경기회복과 90년대초의 노사분규 진정기미로 총자산증가율이

89년 이후 91년까지 두자리수를 보이면서 매출액도 다소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92년도에는 민간 소비의 진정과 수출부진 등으로 매출신장세의 둔화로 매출액증가율이 15 %대에서 10 %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건설업(34.3 %)이나 도·소매업(23.9 %)보다도 훨씬 밑돌고 있다. 또한 설비투자정도를 측정하는 유형고정자산 증가율도 전년도에 비하여 절반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93년도에는 오히려 부의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다.

- 부산지역의 경우, 90년도부터 총자산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이 전국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92년도이후에는 더욱 더 심화되고 있어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실정을 말해 주고 있다.

- 다만, 90년대초의 경기둔화로 영업이익증가율이 91년도에는 전국평균과 서울지역이 부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부산지역 중소기업이 40.3 %의 증가세를 나타낸 것은 업종별 불균형 성장에 기인된 것으로 주로 음·식료품과 기타제조업의 높은 영업이익율에 의한 것이다.

## (2) 업종별 성장성진단

- 우선, 매출액증가율을 보면, 목재(품)과 종이·출판·인쇄업은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여타 업종은 신장추이가 크게 둔화되어 전국평균과 서울지역에 비해 하회하고 있다.

- 92년도에는 1차금속, 조립금속·기계업의 매출신장세가 비교적 크게 둔화되고, 특히 섬유·의류와 신발의 감소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소기업이 내수둔화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는 반면에 대기업은 건실한 수출증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 총자산증가율도 기타제조업, 1차금속, 음·식료업, 화학·고무업 및 조립금속·기계업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 섬유·의류, 목재(품), 종이·인쇄 그리고 비금속광물업종의 증가세둔화가 현저하지만 비금속광물은 증가세가 전국평균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 전년(90년도)대비 두드러진 신장세를 보인 1차금속과 조립금속·기계업종은 전국평균수준을 상회하지만, 서울지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 한편, 92년도를 보면, 국내외 경기전망의 불투명에 따른 기업설비투자의 둔화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증가세는 둔화되고 93년도에는 오히려 부의 증가율 보일 전망이다. 이러한 양상은 취약한 공급구조와 생산설비를 지닌 부산중소제조업에 경우 더욱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나. 수익성분석

### (1) 개요

-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율과 총자본순이익율은 89년도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다만, 93년도에는 경기불투명에 따른 매출증가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의 둔화와 원자재가격의 안정으로 기업의 원가부담이 경감됨으로써, 제조업전체로 볼 때 지난해보다는 다소 호전될 기미가 있으나 중소기업은 담보상태를 면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의 매출증가율이 대기업보다 낮은 데다가 인건비 등의 중소기업의 원가부담이 대기업보다 크다는데 기인한다.

-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수익성이 전국평균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볼 때에도 대부분

이 전국평균수준을 밑돌고 있다.

- 음·식료품업은 전국평균수준을 전국평균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종이·인쇄, 화학·고무, 비금속광물 및 기타제조업의 수익성하회폭이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화학·고무업종의 감소세는 92년도 이후 더욱 더 크리라고 전망된다.

- 한편, 총비용중 금융비용비중은 전국수준과 대동소이하지만, 서울지역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음·식료업과 조립금속·기계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년도(90년도)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 다. 활동성분석

##### (1) 개요

- 보유자산의 효율적 이용도를 측정하는 활동성지표는 전년도(90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전국평균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총자본이 일년에 몇번이나 회전되었는가를 측정하는 총자본회전율은 91년에 1.4회로서 90년보다 소폭 하회하고 있지만 전국평균수준인 1.3회보다는 약간 높고 서울지역(1.5회)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 재고자산회전율은 9.7회로서 전국평균(8.4회)보다는 높고 서울지역(10.4회)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당좌자산으로 변하는 속도가 다소 빨라졌다.

- 고정자산회전율은 전국평균수준과 서울지역에 비해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산지역이 전국이나 서울지역에 비하여 유형고정자산투자율이 훨씬 밑돌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고정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했다기 보다는 타지역에 비해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낮다는 것에 기인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 (2) 업종별진단

- 총자산회전율의 경우, 목재(품), 종이·인쇄, 화학·고무 및 기타제조업종에서는 전국평균수준을 상회하고 있지만 여타 업종에서는 하회하고 있거나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 재고자산회전율은 1차금속을 제외하고는 전업종이 전국평균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 한편, 고정자산회전율은 섬유·의류, 비금속광물 및 1차금속은 전국평균수준을 하회하고 여타 업종은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라. 생산성분석

##### (1) 개요

- <표-5>에 나타난 바와 같이 70년대에 부산지역 제조업의 부가가치성장율은 16.52%로 전국평균수준의 18.13%에 미달되고 있으나 요소투입증가율, 특히 자본투입증가율은 부산(15%)이 전국(10%)에

<표-5> 제조업의 부가가치, 투입요소 및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

(괄호안은 성장기여도, 단위 : %)

구 분	전 국		부 산	
	1970-1980	1981-1989	1971-1980	1981-1989
년 도	1970-1980	1981-1989	1971-1980	1981-1989
부가가치	18.13 (100)	11.94 (100)	16.52 (100)	6.13 (100)
노동	8.5 (13.3)	4.8 (8.4)	8.40 (18.4)	2.04 (4.7)
자본	10.2 (40.6)	12.6 (76.0)	15.7 (76.3)	6.8 (55.6)
총(요소) 생산성	8.37 (46.1)	1.86 (15.6)	0.89 (5.3)	2.43 (39.7)

자료원 : 한국은행 부산지점, 부산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지역정책과 지방금융 발전방향, 1992년 9월 29일.



비하여 높다. 이렇게 높은 요소투입에도 불구하고 성장율이 낮은 것은 부산제조업의 효율성이 전국에 비하여 낮아지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며, 또한 부산 제조업의 성장은 대부분 요소투입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며 노동의 기여도보다는 자본의 투입증대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부산제조업의 경쟁적 위치가 전국에 비해 이미 70년대부터 기술수준의 열위에 처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상기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산제조업의 성장율은 전국에 비해 감소폭이 크다. 이러한 성장율의 감소는 매우 큰 생산요소증가율의 감소, 즉 노동투입증가율의 급격한 감소 (8.4 %에서 2 %)와 자본투입증가율의 격감 (15.7 %에서 6.8 %)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과 자본의 투입증가율은 전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 한편, 89년부터 91년까지의 최근 3년간 주요 생산성지표를 살펴 보면,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와 자본생산성을 표시하는 총자본 투자효율은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비율이 아닌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금액면에서는 전국평균수준을 훨씬 하회하고 있어 생산성이 아직도 타 지역에 비해 저위에 처해 있다.

또한, 총자본 투자효율의 증가세도 약 37 % 수준으로 전국평균수준보다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해 총자본투자가 낮은 것으로 기인된다고 볼 수가 있다.

- 한편, 매출액 대비로 표시되는 부가가치율로 보면, 전국평균수준보다 하회하고 있어 상기와 같은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 (2) 업종별진단

-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증가세는 목재(품)과 1차금속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총자본 투자효율은 목재(품), 비금속광물 그리고 1차금속업종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 그러나,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율은 음·식료품, 화학·고무 및 1차금속업종만이 전국평균과 같은 수준이거나 약간 상회할 뿐, 여타 업종은 전국평균을 밑돌고 있다.

특히, 화학·고무업종이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는 현상은 부가가치가 높은 것보다는 매출저조로 보아야 할 것이다.

- 한편, 92년도에는 경기불투명에 따른 내수와 수출부진이 심화되어 1차금속, 비금속광물 및 종이·인쇄업종의 1인당 부가가치증가율의 감소폭이 컸음을 감안한다면, 부산지역 중소제조업의 생산성은 91년도보다 훨씬 밑돌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 마. 재무구조

### (1) 개요

- 제조업전체로 볼 때, 증시침체의 지속으로 주식발행에 의한 자기자본의 조달이 어려워져 부족자금을 주로 외부차입에 의존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이 소폭 하락하고 있다.

- 중소제조업은 증시침체의 이유도 있지만 경기부진에 따른 매출저하와 채산성악화로 내부유보의 둔화가 자기자본비율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 부문별로 보면, 내수기업과 경공업의 재무구조가 수출기업과 중화학공업보다 상대적으로 나빠졌으며, 대기업에 비해 차입금의존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가 다소 호전기미를 보이고 있다.

-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80년대 중반에는 수익성호조와 증자에 힘입어 재무구조가 다소 개선되어 왔으나, 91년이후에는 수익성악화로 오히려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어 전국평균수준을 밑돌고 있다.

- 자본의 고정화를 나타내는 고정비율도 90년도에 비하여 증대되고, 단기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은 전국수준보다 낮아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재무구조는 전국보다 취약하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업종별진단

- 자기자본비율의 경우, 음·식료품, 비금속광물, 1차금속 및 조립금속·기계업종은 전국평균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여타 업종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섬유·의류, 목재(품) 및 화학·고무업종은 전국평균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어 이 업종의 재무구조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자본의 고정화를 나타내는 고정비율은 자기자본비율과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투하자본에 비하여 시설투자규모가 큰 것보다는 재무구조의 취약성에 기인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 한편, 유동비율은 음·식료품, 1차금속 및 조립금속·기계업종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전국평균을 하회하고 있어 현 부산경제의 자금사정악화와 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압박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섬유·의류업, 종이·인쇄업, 비금속광물 그리고 기타제조업의 유동비율은 90% 미만으로써 단기채무능력부족으로 인한 부도위험이 큰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 Ⅳ. 부산 중소기업의 문제점과 발전침체요인

### 1. 업종구성 문제점

1) 전국 중소기업에 비하여 업종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조립금속·기계 와 1차금속 등의 높은 성장세로 고부가가치업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업종별 투자규모도 비교적 균등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비하여 부산지역 중소기업은 아직도 신발, 섬유업종을 주축으로 화학·고무 및 섬유업종의 비중이 크며, 전국(특히, 경인지역)에 비해 산업구조 조정속도가 느리고 업종별 투자규모의 불균형이 아직도 크다.

2) 부산지역 중소기업 주력업종의 부가가치 성장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부산지역도 산업조정국면을 맞고 있다고 볼 수가 있으나, 화학·고무, 섬유 및 1차금속의 급격한 성장율감소추세는 부산중소기업의 쇠퇴를 의미한다.

특히, 화학·고무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훨씬 급락하고 하고 있다.

3) 낙후된 생산구조로 인한 경쟁력약화와 투자기회감소로 기인하여 거의 모든 업종분야에서 자본투자가 격감하고 있다.

70년대에는 타 지역에 비해 자본투자증가율이 높았지만, 80년대 들어서면서 특히, 80년대후반기에는 전국평균에 비해 훨씬 밑돌고 있다.

이러한 양상의 이유로는,

첫째로, 부산지역 중소제조기업이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취약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위주의 업종이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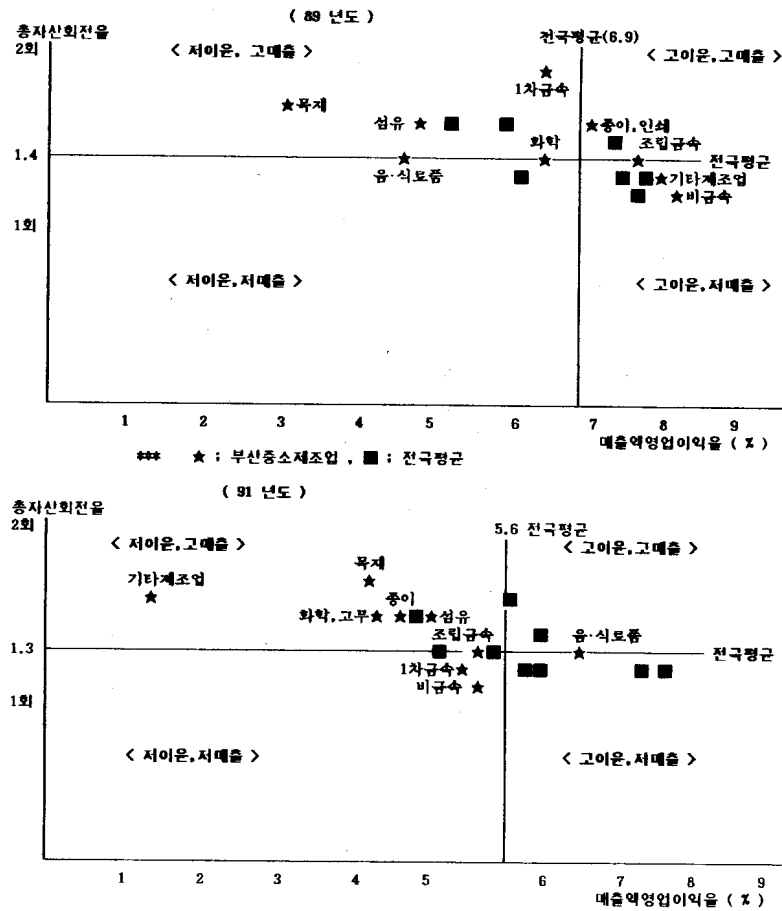
둘째로, 이미 앞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부산지역은 국내 타지역에 비해 대기업이 존속 성장하는데 많은 문제점 (물류비용의 증대, 높은 공장용지가와 협소한 부지, 산업정책의 미흡 등)이 노출되고 있어, 대기업은 주로 창원, 울산, 양산 등에 위치하고 있다.

부산지역 중소제조업은 시장생산형태보다는 경남지역에 위치한 대기업에 대한 납품업체가 주류로서, 타 지역에 비하여 물류비용의 증대와 유기적인 협력관계의 미흡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노사분규발생과 수출부진과 같은 악재가 그대로 영향받아 이중적인 경영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업가동률의 저하와 수익성악화를 초래하여 투자감소를 촉진하게 된 것이 현 실상이다.

## 2. 경영문제점

부산지역 중소제조기업의 경영상의 문제점을 시각적으로 간략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89년에서 91년까지 업종별 매출(총자산회전율)과 수익성(영업이익율)의 변화과정을 도표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부산과 전국간의 중소제조업의 업종별 매출과 수익성의 변화과정



상기 도표에 나타난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다.

(1) 전국적 중소기업체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지만, 부산지역 중소기업체의 경우는 더욱 더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2) 전국에 비하여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업종별 경영실적 불균형이 더 클 뿐만 아니라, 89년에 비해 91년도에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즉, 89년도에는 비금속광물, 종이·인쇄, 조립금속·기계 및 기타제조업 종의 채산성이 전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나, 91년도에는 음·식료품업종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채산성이 악화되어 전국평균수준을 훨씬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부산지역의 경우, 90년도부터 총자산증가율과 매출액증가율이 전국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92년도이후에는 더욱 더 심화되고 있어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실정을 말해 주고 있다.

(4) 현재 중소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사하구와 북구의 경영여건 악화와 공장용지의 절대부족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임대공장이 많고 생산설비가 노후화되어 시설투자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전국평균에 비해 훨씬 떨어지고 있다.

(5) 80년대 중반에는 수익성호조와 증자에 힘입어 재무구조가 다소 개선되어 왔으나, 91년이후에는 수익성악화로 오히려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어 전국평균수준을 밀돌고 있다. 특히, 섬유·의류, 목재(품) 및 화학·고무업종은 전국평균수준을 크게 밀돌고 있어, 이 업종의 재무구조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6) 자본의 고정화를 나타내는 고정비율은 자기자본비율과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투하자본에 비하여 시설투자규모가 큰 것보다는 재무구조의 취약성에 기인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또한, 단기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은 전국수준보다 낮아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재무구조는 전국보다 취약하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섬유·의류업, 종이·인쇄업, 비금속광물 그리고 기타제조업의 유동비율은 90 % 미만으로써 단기채무능력부족으로 인한 부도위험이 큰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 3. 기술개발과 공장자동화

최근에 들어 제조업의 대외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주 요인은 임금상승에 따른 생산원가의 증대와 이로 인한 제품가격의 상승, 후발개도국의 급성장으로 인한 시장잠식 그리고 기술수준의 저위와 신제품개발의 부진에 따른 제품의 다양성과 고품질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에 있다.

우리 경제는 수출주도형 공업화과정에서 가공조립·생산관련기술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으나, 기본설계와 시스템개발 등의 기초기술분야와 첨단·핵심생산기술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대외경쟁력강화에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술이란 문제해결능력으로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지니며, 제조기업에서는 생산기술이 기본이다.

생산기술은 광의의 의미에서 상품개발기술, 제조기술 그리고 관리기술을 포함하는 종합기술로 표현되기도 하며, 핵심제조기술은 대개의 경우 제품설계기술(상품개발기술)과 공정설계기술 및 조립가공기술(제조기술)을 의미한다.

오늘날과 같이 소비자의 수요패턴이 다양하여 제품수명주기가 단축되고 제품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기에는 제품설계기술과 품질관리기술수준이 제조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핵심제조기술 확보방안으로는, 조립금속업종에서는 주로 자체개발부서에 의한 자체습득이 많고, 정밀기계 및 기계제조업종에서는 외국으로부터 설비도입시 기술을 동반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

부산지역의 경우, 상공회의소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이 자체개발부서를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자금력과 기술정보면에서 한계가 있어 제대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술개발투자분야도 신제품개발보다는 기술개발이 비교적 쉬운 단순제조가공기술에 역점을 두고 있어 자체기술개발에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에는 대규모의 투자와 정보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금동원능력, 기술정보력 및 경영능력이 취약한 부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간 협업화 및 모기업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기술개발에 필요요건으로는 투자능력과 정보력 이외에도 전문 및 기능직 기술인력의 확보에 있다. 상공회의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중소기업체의 절반이상이 기술인력의 부족을 기술개발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산지역은 고부가가치산업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국 최하위의 임금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복지후생시설이 부족하고, 공장주변의 환경여건이 열악하여 제조업에서 근무를 기피하고 서비스업종에 몰리고 종업원의 이직율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 중소기업이 살길은 기술인력난을 해소하고 제품의 다양성과 고품질을 유지하는 생산체제를 확립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핵심생산기술을 적용한 공장자동화와 업종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4. 원자재수급상의 문제점

오늘날의 급격한 경영여건의 변화는 제조기업의 원가회계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중 중요한 변화가 원가개념의 혁신과 원가구성의 대폭적인 변화이다.

과거에는 원가개념이 제조원가 내지는 생산원가를 의미하고 원가구성도 재료비, 노무비 및 기타 경비로 국한하였으며, 주요 원가절감항목도 노무비에 초점을 맞추고 제조간접비도 노무비중심으로 배분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제품수명주기가 단축되고 제품의 다양성과 제품품질보증이 요구되어 단순한 제조원가 이외의 제품설계비용과 품질관리비용의 비중이 커지면서 원가개념이 이러한 비용을 포함하는 수명원가(Life Cycle Cost)개념으로 확대되고 원가구성도 상대적으로 노무비비중이 줄어들고 원재료비와 제조간접비비중이 커졌다.

따라서, 원가관리의 초점도 노무비중심에서 원재료와 제조간접비로 전환되고 있으며, 원가회계시스템도 대폭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과정을 고려하고 대외경쟁력의 확보에 원가절감이 핵심적인 경쟁무기임을 감안할 경우, 원자재의 관리 및 수급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는 불확실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적정재고를 보유하는 것이 재고관리의 초점이었지만, 오늘날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창고를 없애고 재고유지비와 물류비용을 극소화하는 적극적인 재고관리전략(JIT 등)으로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적 원가관리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부산지역 중소기업체의 원자재 수급실태를 살펴 보면, 조사대상업체의 약 70% 가량이 국산원자재 사용비율이 60% 이상이고 수입에 의존하는 업체는 약 25.8%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는 부산지역 중소기업체의 대부분이 완제품보다는 중간제품 및 부품·소재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원자재 조달방법을 보면, 공동구매보다는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구매하고 있어, 적기에 공급물량의 확보와 원자재 가격상승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수송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

## 5. 발전여건의 문제점과 평가

### (1) 부산의 지리적 좌표와 위상강화 필요성

- 부산은 국토의 공간구조상 수도권과 연결하는 경부축의 중심도시로 서울과 더불어 국제적인 기능을 지닌 도시로서 수도권의 성장과 확대를 억제하고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며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위상강화가 필요하다.

- 태평양연안국의 높은 경제성장율로 환태평양의 물동량이 크게 증대되고 시베리아대륙횡단철도와 중국 대륙횡단철도에 의한 대유럽교역이 점점 증대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부산은 한국-일본-중국-독립국연합의 연해주로 연계되는 동북아해상수송의 중심지에 위치함으로써, 환태평양경제권의 국제교역도시와 동북아해송의 거점도시로 발전되어야 한다.

- 육상교통과 해상교통을 연계하는 한국 제 1의 항만으로써, 수출입화물수송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출의 역군인 제조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 방안이 물류비용의 감소와 물류시간의 단축을 들 수가 있는데, 이를 위한 항만시설의 확충과 항만서비스의 향상이 도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부산이 동남경제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해양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 부산의 제조기업은 화학, 고무, 섬유, 1차금속 및 조립금속에 편중되어 있어 70년대에는 집중적인 자본투자에 의해 높은 성장을 이룰 수가 있지만, 80년대의 급격한 투자감소로 낮은 기술수준과 노후화된 생산구조를 지니고 있어 경쟁력이 급격하게 약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후화된 산업이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산업으로 구조조정됨이 없이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도시발전단계상 도시성장의 기반이 되는 제조기업의 육성되고 고도화되어 지역생산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후에 지역서비스산업의 다변화가 이루어져야만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다. 따라서, 노동집약적이고 경기에 민감한 수출부문에 집중되고 노후화된 생산기반을 지닌 부산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육성을 위한 정책배려와 여건조성 (Infra-Structure)이 필요하다.

### (2) 제조업의 구조고도화와 육성에 대한 부산의 문제점

#### ㄱ. 항만의 문제점

- 기반시설 미비
- 항만생산성 저하
- 물류서비스 미흡
- 도시교통체증을 심화시키고 물류비용과 물류시간의 증대를 초래함.

#### ㄴ. 도로-토지문제

- 절대적으로 이용가능한 공간부족
- 전국 최하위의 도로율
- 도시계획의 미흡과 도시기능과 항만기능의 부조화로 전국 최고의 교통체증을
- 협소한 도시공간에 비해 높은 인구밀도로 용지가가 높음.

\* 높은 공장용지가로 임대중소제조기업이 난립하여 영세성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경쟁력을 취약하게 함.

\* 높은 용지가와 공장부지의 부족으로 인근 경남지역으로 대기업을 진출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관계가 소홀히 되고 납품에 따른 물류비용, 물류시간의 증대가 야기되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3) 문제점 해결방안

부산권의 협소한 공간으로 항만기능과 도시기능이 상충하여 부산발전을 저해하므로 부산권역을 서남 및 서북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소제조기업의 협업화단지 및 대기업 유치도 이러한 발전축에 따라야 한다.

ㄱ. 녹산, 대저 및 가락지역에 중소제조기업의 집단화단지로 조성하여 동종 및 이종 업종간의 협업화단지와 단지내의 물류시설의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중소제조기업의 용지난과 물류비용의 증대를 해소함은 물론, 대기업을 유치하여 대기업과 중소제조기업간의 계열화에 의한 생산, 기술개발, 판매 등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중소제조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ㄴ. 현 부산 북항은 처리할 수 있는 물동량이 포화상태이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항만서비스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도시교통체증을 야기시켜 도시기능을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감천항만을 제조기업 전용 컨테이너부두로 개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녹산·가락지역에 대한 대단위의 협업화단지 및 계열화단지가 조성될 경우, 이를 기업의 물류비용과 물류시간을 극소화시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용항만시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ㄷ. 부산권의 광역간선도로의 기능저하와 도심교통체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화물트럭 (컨테이너트럭 포함) 전용도로를 낙동강을 따라 건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 (현재 강변도로의 신설을 확정하여 착공중임)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적의 도로가 건설될 경우, 사상공단과 새로 조성될 녹산·가락단지의 제조기업의 물류비용의 감소와 물류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광역환상도로망을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감천항을 컨테이너 전용항만으로 개발하고 낙동강 강변도로를 활용하여 항만과 협업화단지를 연계하는 전용도로를 건설할 경우, 부산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부산·경남지역의 광역환상도로망을 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광역간선도로의 기능저하와 도심교통체증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 현 북항이 처리할 수 있는 물동량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항만기능의 저하를 방지할 수가 있으며,
- 사상공단 및 새로 조성될 녹산·가락지역 협업화단지내의 기업의 물류비용과 물류 시간을 극소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 부산지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대기업 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가 있다.

ㄹ. 부산지역은 인구에 비해 활용가능한 용지가 절대부족하여 용지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이는 대기업이 부산을 이탈하고 중소제조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주요인 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현재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녹지를 완화하여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활용하는 것이 협소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부합될 것이다.

## V. 결론(부산중소제조업의 경영합리화와 활성화대책)

(1) 부산 중소기업이 살길은 기술인력난을 해소하고 제품의 다양성과 고품질을 유지하는 생산체제를 확립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핵심생산기술을 적용한 공장자동화와 업종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부산시의 지원(유망중소제조업체를 발굴하여 기술개발과 공장자동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함은 물론, 효과적으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업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의 대폭적인 지원 등)과 더불어, 기업도 환경변화에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매출액대비 기술개발투자를 대폭 증대시켜야 하며, 핵심생산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력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은 공장자동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컴퓨터통합생산(CIM)인 첨단생산시스템으로 가는 것으로써, 이제는 부산중소제조업도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공동기술개발, 공동정보망 이용, 공동판매 및 공동원자재구매를 위한 협업화단지를 조성하는데, 관·민·기업이 혼연일치가 되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항만-육상연계체제가 정비되어야 하며, 사상공단과 앞으로 조성될 녹산공단에 대비하여 트럭 및 컨테이너 전용도로(현재 착공될 낙동강강변도로의 이용 등)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중을 증대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주식시장에서 증자를 이용하는 방안과 매출증대와 채산성의 회복으로 내부유보를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첫째로, 기업은 기업공개를 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유도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동남권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자본시장의 개방화와 국제화에 대비하고 부산제조기업의 자기자본비중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자본시장(가령, 부산증권거래소의 설립 등)체제구축이 필요시 된다.

그리고, 사금융의 이용보다는 저리의 안정적인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도 신용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부와 부산시 및 금융기관도 이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매출증대를 위해서는 기업은 적극적이고도 새로운 마케팅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협업화에 의한 공동정보망을 이용하여 시장정보과 제품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경영능력을 제조시키고 인재를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4) 단기적인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음결제기간의 단축 등 납품관행의 개선과 중소기업고유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와 독과점을 방지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5) 급격한 경영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경쟁무기가 변화하고 원가개념 및 원가구성의 변화에 따라 원가절감의 개념이 변화하는 것에 주시하여, 기업여건에 따라 생산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원가시스템의 변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에 따라 원가관리전략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적시재고관리시스템 등의 새로운 재고관리전략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부문은 과감히 제거 및 축소하여 경쟁력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적 원가관리시스템의 도입이 필요시된다.



## 참고문헌

- 1) 김기영, 경영전략,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1992년.
- 2) 안기명, 환경변화에 따른부산제조업의 문제점과 경영전략방안, 부산발전시스템연구소, 1993년 6월호.
- 3) 한국은행 부산지점, 부산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지역정책과 지방금융 발전방향, 1992년 9월 29일.
- 4) 중소기업은행, 기은조사월보, 1993년 3월호.
- 5)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역 제조업체현황, 1993년.
- 6) 박창호, 이철영, 부산항 컨테이너 물류시스템 분석에 관하여, 한국항만학회지, 제 5 권, 1호, 1991년 8 월.
- 7) 부산발전시스템연구소, 부산국제화와 전략구상, 1992년 12월.
- 8) ———, 부산 경남 지역발전 5개년계획 연습, 1992년 12월.
- 9) 정필수 외 2인, 우리나라 화물유통비용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해운산업연구원, 1991년 9월
- 10)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경영실태 및 동향, 1993년 6월.
- 11) Coopers, R. & kaplan R.S., "Measure Costs Right : Make the Right Decisions," Harvard Business Review(Sep/Oct. 1988).
- 12) Howell, R.A. & S.R. Sourcy, "The New Manufacturing Environment : Major Trends for Management Accounting," Management Accounting(July 1987).
- 13) Johnson, H.T., "Processors, Customers and Value : Bringing a Global Perseperspective to Management Accounting Education," in Turney, P.B.B. Performance Excellence in Manufacturing and Service Organization(AAA) 1990. .
- 14) Johnson, H.T. & R.S. Kaplan, Relevance Lost : the Rise and Fall of Management Accounting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 15) Kaplan, R.S., "The Role for Empirical Research in Management Accounting," Accounting, Organization and Society, 1986.
- 16) Kaplan, R.S., "The Evolution of Management Accounting", Accounting Review(July 1984).
- 17) Kaplan, R.S., "One Cost System isn't Enough," Harvard Business Review(Jan. 1988).
- 18) Shank, John, K., "Strategic Cost Management", Journal of Management Accounting Research (Fall 1989).
- 19) Shank, John, K. & Govindarajan, Vijay, "The Peril of Cost Allocation Based on Production Volumes," Accounting Horizons(1988).
- 20) Shank, John, K. & Govindarajan, Vijay , Strategic Cost Analysis : The Evolution from Managerial to Strategic Accounting(Iwin) 1989.
- 21) Shank, John, K. & Govindarajan, Vijay , Strategic Cost Management and Value Chain, Cost Management(Winter 1992).
- 22) Porter Michael E., Competitive Strategy(New York : The Free Press, 1980).
- 23) Porter Michael E., Competitive Advantage : Creating and Sustaining Superior Performance(New York : The Free Press, 1985).
- 24) Zimmerman, J.J., "Accounting, Incentives and Lot-Sizing Dcision : A Field Study," Management Accounting Research, Vol.2.(Fall 1990).

